

미국-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의 원전지지율, 일반주민보다 더 높아지다

(원자력 에너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

1. 여론조사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사는 주민을 대상으로 미국 전역에 걸쳐서 처음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워싱턴 DC의 조사회사, 비스콘티 리서치사가 2005년 8월 미국내 64개소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반경 10마일 이내에 거주하고 있는 성인에 대하여, 1개소당 18명 합계 1,152명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인터뷰한 것이다. 조사대상자는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로써 전력회사 종업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2. 조사결과

현재 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에는 NIMBY(Not My Back Yard) 증후군은 거의 존재하지 않으며, 반대로 원자력발전소는 주변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판명된 중요한 점은 일반 시민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2005년 5월에 비스콘티 리서치사가 미국내 18세 이상의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와 비교했을 때 발전소 주변 주민이 원자력발전소에 대하여 품고 있는 호감도는 한층 더 높아졌다는 점이다.

3. 보안과 긴급시 대책

이 조사에서 주변주민이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과 보안에 높은 신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원자력발전소를 '신뢰할 수 있다', '테러리스트의 공격에도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마찬가지의 높은 비율로 주민들은 각 발전소로부터 긴급시 대응정보를 제공받는 일이 있다고 답

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시에 이들 정보를 용이하게 받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주민들은 42%에 불과하여,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긴급시의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것이 이번 조사에서 밝혀졌다.

4.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주변주민은 그들이 입수하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가) 플랜트에 관한 유효한 정보원

- 1위 ----- 지방뉴스(75%)
- 2위 -----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는 것(64%)
- 3위 ----- 발전소 직원(62%)

(나)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 1위 ----- 발전소의 안전 전문가(75%)
- 2위 ----- 발전소의 방사선 전문가(72%)
- 3위 ----- 발전소로부터 받은 팸플릿(71%)
- 4위 ----- 발전소의 환경 전문가(70%)

이 외에 지자체 관계자(35%), 반(坏)원자력 그룹(22%)

이들 정보에 더하여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원자력발전을 보다 더 신뢰하고 지지하다는 것도 이번 조사에서 확실하게 나타났다.

5. NEI(원자력에너지협회)의 원자 에너지 브랜드 캠페인

조사결과에서는 NEI가 원자력에너지와 그 신뢰성, 청정한 이미지 및 경제성을 결부시키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브랜드 캠페인에 대해서 아직 일부 개선의 여지는 있지만, 좋은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자력발전을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대기를 오염시키지 않은 청정한 에너지', '값이 싼 에너지' 라고 하는 설문에 대하여 각기 67%, 66%, 50%의 사람들이 '매우 그렇게 생각한다' 고 회답했다.

1 |

	질 문 내 용	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찬성비율)	일반시민(찬성비율)
1	장래의 에너지 수요를 조달하기 위하여 원자력에너지가 중요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89%	83%
2	연방정부의 안전기준을 계속해서 충족시키는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허가 갱신을 지지하는가?	90%	85%
3	원자력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83%	70%
4	원자력 발전플랜트를 더 신설한다는 옵션을 유지하는 것에 찬성하는가?	83%	74%
5	장래에 만약 필요하다면 원자력 발전플랜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전력회사는 지금 준비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81%	77%
6	원자력 산업계는 장래 더욱 원자력 발전플랜트를 적극적으로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73%	58%

또한, ‘효율이 좋다(68%)’,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59%)’, ‘에너지 보안상의 유효(56%)’ 라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6. NEI의 견해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하여 NEI의 스콧 피터슨 부회장(홍보담당)은 ‘이러한 결과가 얻어진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일반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주변주민들 간에서는 강력한 지지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NEI는 이 조사결과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주민, 발전소의 관리직, 긴급시 대책 관계자에게도 보냈으며, 원자력발전소 운전허가의 갱신, 보안대책, 긴급시 대책, 신규 플랜트에 관한 신청 등의 주요 안건을 추진할 때 일반 시민의 이해를 보다 깊게 하기 위하여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출처: 일본전기협회 발행 “전기협회보”)